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의 가격과 객관적 품질에 관한 비교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백 수 경*(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황 선 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교수)

많은 소비자들이 가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제품의 품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제품구매시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빈번히 제품품질의 지표로서 가격을 이용한다고 한다(Peterson & Wilson, 1985).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실제 가격과 객관적 품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효율성을 파악한 연구가 각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패션제품에 관한 가격과 객관적 품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한국과 미국 패션시장의 가격과 객관적 품질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패션제품의 품질수준을 비교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격이 제품품질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 시장의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의 가격과 객관적 품질의 상관관계가 패션산업범주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탐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구매이득은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를 위한 내용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양국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립적 정보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 시대>와 미국의 <Consumer Reports>에 게재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상품비교테스트 정보중에서 패션제품군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한국의 36개 패션제품군, 470개 제품과, 미국의 40개 패션제품군, 692개의 패션제품이었으며, 패션산업범주는 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의류, 스포츠 의류, 유·아동복, 언더웨어, 잠화·제화류, 침장류, 섬유직물, 화장품, 학생복 등 11

가지 산업범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패션제품의 지난 십년간의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한 정(+)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패션제품의 전체 서열상관계수의 평균은 0.091이었고, 미국의 상관계수 평균은 0.192였다. 상관계수의 수치만으로 볼 때 한국보다는 미국 패션제품의 가격과 품질간의 상관관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양국간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한국 패션제품의 경우에는 제품군의 가격대별 상관관계를 살펴봐왔는데, 그 결과 1만원 미만의 저가 제품군과 3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군의 경우 부(-)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둘째, 1990년대 한국과 미국 패션시장의 가격과 품질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제품군별·산업범주별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패션제품군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가장 높은 '여행용가방($r=0.707$)'에서 가장 낮은 '자외선 차단화장품($r=-0.580$)'까지, 그리고 미국 패션제품군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팬티스타킹'의 0.820에서 '남성용 런닝슈즈'의 -0.472까지의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이득을 추산한 결과 패션제품시장에서 완전한 품질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현명한 사람'은, 최고가격의 제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부유한 사람들'의 구입방식에 비해 최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총 지불액의 비율로 보아, 한국의 소비자는 약 50% 정도를, 미국의 소비자는 약 91%나 되는 액수를 절약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과 미국 모두 제품군별, 그리고 산업범주별로 상관관계

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국의 소비자들이 패션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 오로지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좀더 합리

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하여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 관한 신뢰있는 정보의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